

◆ 북미

- 캐나다의 명의도용(identity theft)보험
- 미국 베이비 붐 세대들의 장기간병 지출에 대한 오해
- 뉴욕 보험부, 원칙중심규제 초안 발표

◆ 유럽

- 영국, 군인 상해보험 2배 인상 예정
- S&P, 유럽 보험회사 “신용 위기”에 대한 노출 검토
- ERGO, 인도의 HDFC와 합작투자 발표

◆ 일본

- 내각부 조사, 암 검진 못 받은 일본인들 50% 넘어
- 대형생보사 2007년 상반기 사상 최악의 신계약 성장률 기록
- 대형손보사 외국인 지분 상승

◆ 중국

- 내년 중국 보험업계 최대 이슈는 ‘보험업종 세제개혁’
- 2007년 3/4분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 해석(2)
- 외자보험회사, 여전히 쉽지 않은 중국시장 파고들기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캐나다의 명의도용(identity theft)보험

- 명의도용 보험은 2000년 경 미국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많은 캐나다 보험사들에 의해 캐나다에도 소개되고 있음.
 - 명의도용보험은 보통 가계보험에 25~50달러 정도를 추가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명의도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함.
 - 명의도용을 당할 경우 은행정보변경, 운전면허 재발급 등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명의도용보험은 업무공백에 따른 소득피해와 각종 수수료 비용 등을 보상해줌.
 - 명의도용의 많은 경우는 단순한 신용카드사기를 뛰어넘는 심각한 범죄들을 야기하지만 명의도용보험이 도둑맞은 현금이나 카드의 실제 피해액을 보상해주지는 않음.

- 지난 몇 년간 자주 거론되는 이슈였던 명의도용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AOL의 조사에 의하면 80%의 캐나다인들이 명의도용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7%의 캐나다인들이 명의도용보험이나 명의도용 회복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음.
 - 명의도용 범죄자들의 다양화되는 수법뿐만 아니라 피싱 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명의도용보험의 효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명의도용보험이 보장해주는 소득과 법적비용 등에 대한 한도가 작아 명의도용보험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음.

(Globe And Mail, 11/1)

□ 미국 베이비 붐 세대들의 장기간병 지출에 대한 오해

- 미국 건강보험제도(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 이하 AHIP)의 설문에 따르면 약 1/4의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장기간병지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베이비 붐 세대들은 장기간병 서비스에 대해 누가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며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들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HIP에 의해 진행중인 설문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발견됨.
 - 현재 60세에 가까운 베이비붐 세대들 중 단지 25%만이 장기간병보험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41%는 지난 20개월간 한 번도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함.
 - 또한 30%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장기간병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미국보험감독관협회(NAIC)의 추정에 따르면 실제 장기간병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많아야 6.6% 정도에 불과함.
 -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인의료보험(Medicare)등의 다른 건강보험이 장기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노인의료보험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들은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이 장기간병 지출을 위한 재정적 대비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음.

- AHIP는 설문 결과 발표와 함께 “장기간병보험 인식 주간(Long-Term Care Awareness Week)”을 선정하여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함.
 - 이 주간동안 AHIP는 소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장기간병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PR Newswire, 11/5)

□ 뉴욕 보험부, 원칙중심규제 초안 발표

- 뉴욕의 보험 감독관인 Eric Dinallo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칙중심규제 (Principles-Based Regulation)에 대한 초안을 발표함.
 - 이 초안은 보험사와 감독자 각각에 대한 10가지 원칙들을 포함하며, 이들 원칙들은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험사가 철저하게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보험산업을 위한 10개의 원칙들은 아래와 같음.
 - (1) 보험사는 정직, 근면 그리고 적합한 기술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2) 보험사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보험사는 적절한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 (4) 보험사는 시장행위의 적합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5) 보험사는 고객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6) 보험사는 고객의 정보 니즈를 적절히 고려해야하며,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7) 보험사는 보험사와 고객 또는 고객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모두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8) 보험사는 개인 또는 자격이 있는 법인에 대한 조언이나 재량적 결정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9) 보험사는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 어떠한 고객의 자산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 (10) 보험사는 공개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감독자 등과 상호 교류해야 하며, 감독자가 고지를 기대하는 보험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감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Insurance Journal, 11/5)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군인 상해보험 2배 인상 예정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상당한 증가에 따라 영국 군인들의 개인 상해보험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예정임.
 - 국방부는 군대에 특별보험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는 주요 보험회사들과 토의를 거쳤으나 아직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 Sunday Times에 유출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보험료는 2배 가량 증가한 1천 유로(연간보험료 기준)에 가까울 것이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16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영국 군대의 1/3에 해당하는 58,000명의 군인들은 1989년부터 AIG Europe(UK)에서 판매하는 “Pax”라는 민영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국방부에서 보상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받고 있음.
-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는 군대는 상해에 대한 정부 보상체계가 제한적임에 따라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가로 민영보험에 가입할 것을 장려받고 있음.
 - 데스 브라운 국방장관은 지난달 정부 보상체계가 변경되었음을 발표하였는데, 복합상해에 대하여 과거에는 주요 상해 3가지만 보상하던 방식에서 각각의 상해에 대해 모두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그러나 최대 지급한도는 여전히 285,000유로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중상자가 300명 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금액임.
- 이와 관련하여 리암 폭스 예비내각 국방장관은 예견된 보험료 인상은 군인과 정부 간의 계약위반이며, 정부는 군인들을 사지에 내몰도록 요구하면서 스스로 그 댓가를 치루라고 하는 것 또한 모욕적이라고 비난함.

(Times Online, 11/5)

□ S&P, 유럽 보험회사 “신용 위기”에 대한 노출 검토

-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서브프라임 신용 위기 이후 유럽 보험회사의 상황을 점검한 산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대형 보험회사들은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의 유동성은 여전히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 유럽 보험회사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우려로 촉진된 신용위기 이후 유동성 상태가 탄력적이라고 분석하였는데,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유동성과 신용등급에 고려되는 부분은 주로 거대 자연재해 혹은 생보사 대규모 해약사태 직후에 발생하는 영향에 크게 의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보수적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어(부분적으로는 법률로 제한되기도 함) 대부분 국채, 회사채, 은행예금, 주식의 형태로 투자가 전개되며, 신용위기 평가 결과 미국 대형 생보사의 자회사군을 제외하고는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결국 미국 밖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보험회사들은 주식과 신종자본증권에 의해 매우 단기적인 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밝힘.
 -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는 유럽에서 8개사이며 매우 소액에 대하여 위탁은행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발행할 뿐이며 재무적 유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함.
- S&P는 또한 반경쟁적 행위와 브로커 수당에 대한 EC의 최근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유럽의 주요 재보험회사들이 재보험 가격 차별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긴 하나 결국 향상된 담보력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므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Insurance Journal, 11/6)

□ ERGO, 인도의 HDFC와 합작투자 발표

- 인도 주택개발금융공사인 HDFC(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Limited)와 Munich Re의 원수사업 부문인 ERGO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반손해보험의 합작투자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함.
 - 현재 인도보험감독당국인 IRDA의 법적 승인을 남겨놓은 상태이며, HDFC와 ERGO는 2007년 말까지 거래를 완료할 예정으로 양 사는 계약상의 세부항목까지 동의하였음.
- 계약조건은 ERGO사가 HDFC 손해보험사의 지분을 26% 소유하는 것으로, Munich Re는 2개사가 영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서로간의 강력한 파트너사가 될 것이며 인도 손해보험시장에서 두각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밝힘.
- 뭄바이에 본사를 둘 예정인 합작사의 새로운 명칭은 "HDFC ERGO General Insurance"이며, Munich Re의 CEO인 니콜라스 본 보마드와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 만모한 싱 총리와 HDFC 회장 디팍 파레크의 참석하에 합작 계약이 체결됨.
 - 본 보마드는 복합금융서비스를 선도하고 인도내 1등 주택금융기관인 최고 프로필을 가진 HDFC와 파트너를 맺게 되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 디팍 파레크는 ERGO사를 독일과 유럽내 보험리더로 만든 고품질의 기술적이고 영업적인 노하우와 광범위한 보험 전문기술이 전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Munich Re는 HDFC와의 합작투자는 ERGO 보험그룹의 국제화 확장 전략과 함께 인도 손해보험시장에 원수사업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하였으며, 시장요구에 따른 경쟁력있고 혁신적인 상품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함.

(Insurance Journal, 11/2)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내각부 조사, 암 검진 못 받은 일본인들 50% 넘어

- 일본인은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암 검진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내각부가 지난 9월 30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암 대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암 검진에 대해 94.7%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대장암이나 폐암, 유방암에 대해 검진을 한 번도 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암 검진에 대한 관심과 현실에 있어 상당한 괴리현상이 나타남.
 - 또한, 일본 국민들은 암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한 1년 이내에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30%대에 이르며, 향후 정부가 ‘암의 조기 발견’에 가장 역점을 두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정부는 금년 6월에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암대책 추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 실태를 조사
 - 1년 이내에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위암 29.5%, 폐암 34.7%, 대장암 27.1%, 자궁암 29.1%, 유방암 23.7%, 기타 암(전립선 등) 9.1%로 나타남.
 - 국민들이 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복수회답)는 ‘암의 조기 발견(암건강 진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암 의료에 관련되는 의료기관의 재정비’가 49.1%, ‘암에 관한 전문 의료 종사자의 육성’이 45.4%, ‘암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이 4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 암 대책 추진실은 “예상외로 암 건강 진단의 진찰률이 낮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진찰률을 높이도록 국민 암 정책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힘.

(산케이신문, 11/10)

□ 대형생보사 2007년 상반기 사상 최악의 신계약 성장률 기록

-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부당 미지급·누락 등으로 인하여 금융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상반기 신계약 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니혼(日本)생명을 비롯한 상위 4개 보험회사들의 2007년도 상반기(4-9월) 개인보험의 '신계약 연환산 수입보험료'는 약 3000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여 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
 - 특히, 니혼생명보험은 2007년 상반기 '신계약 연환산 수입보험료'가 350억엔 이상 감소하며 약 25% 줄어들어 대형사 중에서 최대 감소폭을 기록
 - '신계약 연환산 수입보험료'는 월납, 연납, 일시납 등의 형태로 받는 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생명보험회사가 매년 어느 정도 신계약을 획득하여 보험료 수입을 거두는지를 나타내는 생명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경영지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 또한,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약 22% 감소하였으며, 스미토모(住友)생명은 전년동기대비 약 14% 감소함.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은 감소폭이 명목상 약 2%로 타 회사에 비해 가장 적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형 생보사 중에서 가장 먼저 금융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분석
 -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AFLAC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2007년도 상반기 '신계약 연환산 수입보험료'는 거의 전년수준을 유지할 전망

- 니혼생명보험 등은 금년 봄 이후 일부 설계사들을 보험금 지급 부문으로 재배치하거나 보험계약자들에게 직접 방문하게 해 보험금 지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음.
 - 이 때문에 판매보다는 계약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주력 상품인 사망보험의 신 계약고가 전년동기 대비 30%~40%에 머무르는 등 수입보험료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마이니치신문, 11/9)

□ 대형손보사 외국인 지분 상승

-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 중 4개 손해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금년 9월말 현재 3월말 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 투자 펀드가 손해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으로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는 회사도 있어 보험업계 재편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외국인 지분비율이 상승한 것은 도쿄(東京)해상, 니치도(日動)화재보험을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미래아홀딩스와 아이오이손해보험, 니혼코아(日本興亞)손해보험, 닛세이도와(同和)손보 등 4개 회사임.
 - 외국인 지분비율이 가장 높게 상승한 니혼코아(42.5%)는 금년 3월말과 비교하여 2.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도 외국인 지분비율이 40%를 넘음.

-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주식 매입이 확대되고 있음.
 - 니혼코아의 경우 최근 미국계 투자펀드회사가 주식의 5.05%를 취득하였으며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경우에도 미국계 투자펀드회사가 10.39%를 보유
 - 일본 국내 시장이 저출산 현상으로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M&A 등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외국계 펀드회사들의 상당수는 주식의 보유목적은 ‘순수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외국계 펀드는 단기간으로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의 주식 전망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음.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비율(%)

	2006.9	2007.3	2007.9
미래아홀딩스	34.3	36.0	38.3
손해보험재팬	39.9	40.6	39.0
三井住友해상	39.6	41.4	40.8
아이오이손보	24.4	24.9	26.3
日本興亞손보	39.3	40.4	42.5
닛세이同和손보	13.5	14.1	15.9

(FujiSankei Business I. 11/10)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내년 중국 보험업계 최대 이슈는 ‘보험업종 세제개혁’

- 최근 중국 보감위가 발표한 ‘2008년 보험업 주요 연구과제’에 따르면, 보감위는 내년 4대 영역에 걸쳐 56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중 보험산업 세제개혁, 보험자금운용채널 확대, 중소보험회사 지원, 기업연금시장 발전 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연구과제로 떠올랐음.
-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감위는 보험업종 세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현재 보험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양대 세목에 대한 세율은 약 10여 년 전에 규정한 것으로서, 우편통신이나 건축업종에 비해 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율 인하를 통한 세금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정부가 보험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양대 세목은 영업세와 기업소득세이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도시유지건설세, 인세 등도 함께 거두어들이고 있음.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금융보험업 영업세 세율은 매년 1%씩 하락해 5%에 까지 이른 뒤 지금까지 적용해 왔으나 이는 우편통신, 문화체육, 건축, 교통운수 등 3%를 적용하고 있는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편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생명보험모집인은 매월 개인소득세외에도 수당의 5%를 영업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기 납입한 영업세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이를 시정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매일경제신문, 11/9)

□ 2007년 3/4분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 해석(2)

- 중국 보감위가 11월 초 발표한 <2007년 3/4분기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에 따르면, 은행대리를 통한 겸업대리기구의 수입보험료가 소폭 상승하였음.
 - 3/4분기 겸업대리기구 수와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대리기구 수가 지난 해 동기 대비 5.92%, 2/4분기 대비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보험료 부분은, 지난 9월말 현재 보험겸업대리기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보험료 총액은 1,637억 위안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34.3% 증가하였으며, 수입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7%로 2.44% 증가하였음.
 - 특히 은행과 우체국은 겸업대리의 주력으로서 양대 채널이 3/4분기에 거두어들이는 수입보험료는 전체 겸업대리기구가 거두어들이는 수입보험료의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이처럼 수입보험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업대리기구 수입보험료에서 은행과 우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겸업대리기구의 영업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점으로 기존 은행 창구를 이용한 직접판매 방식에서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 화샤은행(華夏銀行)과 광따은행(光大銀行)은 콜센터를 이용하여 다이렉트 판매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함께 비용절감에 나섰음.
 - 중미메트로생명(中美大都會人壽)은 자오상은행(招商銀行)과 함께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광저우(廣州)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판매 하는 전용상품까지 개발했는데, 2007년 8월 말 현재 콜센터를 이용한 수입보험료가 16.8억 위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금융시보, 11/3)

□ 외자보험회사, 여전히 쉽지 않은 중국시장 파고들기

- 중국정부는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 손해보험회사는 분지점 형태로 진입을 허가하고, 생명보험회사는 2004년 이전에 반드시 합자형태로 진입을 허가하되 외국 측 지분을 49%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관철시켰음.
 - 이는 수십년의 보험회사 운영 경험과 상품개발 능력을 가진 외국의 거대 보험사들이 중국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임.
- 하지만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2004년 이후 3년 넘게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도 이들 외자보험회사는 중국에서 큰 성장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외자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15%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해 동기 대비 0.09%, 2005년 대비 0.02% 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 외자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79%로 지난 해 동기 대비 약 4.8% 증가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외자보험회사가 중국 진출 시 생명보험에 집중한 반면 손해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 2005년 상반기 중이생명(中意人壽)이 기업연금 200억 위안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외자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이 일시적으로 12.8% 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타 외자보험회사의 후속 계약 부진으로 이듬해 시장점유율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음.

(중국보험보, 11/6)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0.26(금)	07.11.2(금)	07.11.9(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4.92	5.37	5.42	5.34	-0.08
	美 10년국채	4.71	4.40	4.32	4.22	-0.10
	英 10년국채	4.73	4.85	4.87	4.74	-0.13
	日 10년국채	1.68	1.62	1.59	1.54	-0.05
주가	韓 KOSPI	1,434.46	2,028.06	2,019.34	1,990.47	-1.43%
	韓 KOSDAQ	606.15	799.06	797.66	779.04	-2.33%
	美 DJIA	12,463.15	13,806.70	13,595.10	13,042.74	-4.06%
	美 Nasdaq	2,415.29	2,804.19	2,810.38	2,627.94	-6.49%
	英 FTSE	6,240.90	6,661.30	6,530.60	6,304.90	-3.46%
	獨 DAX	6,596.92	7,949.17	7,849.49	7,812.40	-0.47%
	佛 CAC40	5,541.76	5,794.87	5,720.42	5,524.18	-3.43%
	日 Nikkei225	17,225.83	16,505.63	16,517.48	15,583.42	-5.65%
	中 상해종합	2,675.47	5,589.63	5,777.81	5,315.54	-8.00%
	대만 가권	7,823.72	9,631.51	9,273.09	8,970.92	-3.26%
홍콩항셍	19,964.72	30,405.22	30,463.73	29,133.01	-4.37%	
환율	원/달러	929.60	917.60	902.20	907.80	5.60
	원/100엔	781.83	804.81	788.40	806.00	17.60
	엔/달러	118.90	114.01	114.43	112.63	-1.80
	달러/유로	1.3148	1.4325	1.4436	1.4676	0.0240
	위안/달러	7.8135	7.4820	7.4610	7.4207	-0.0403